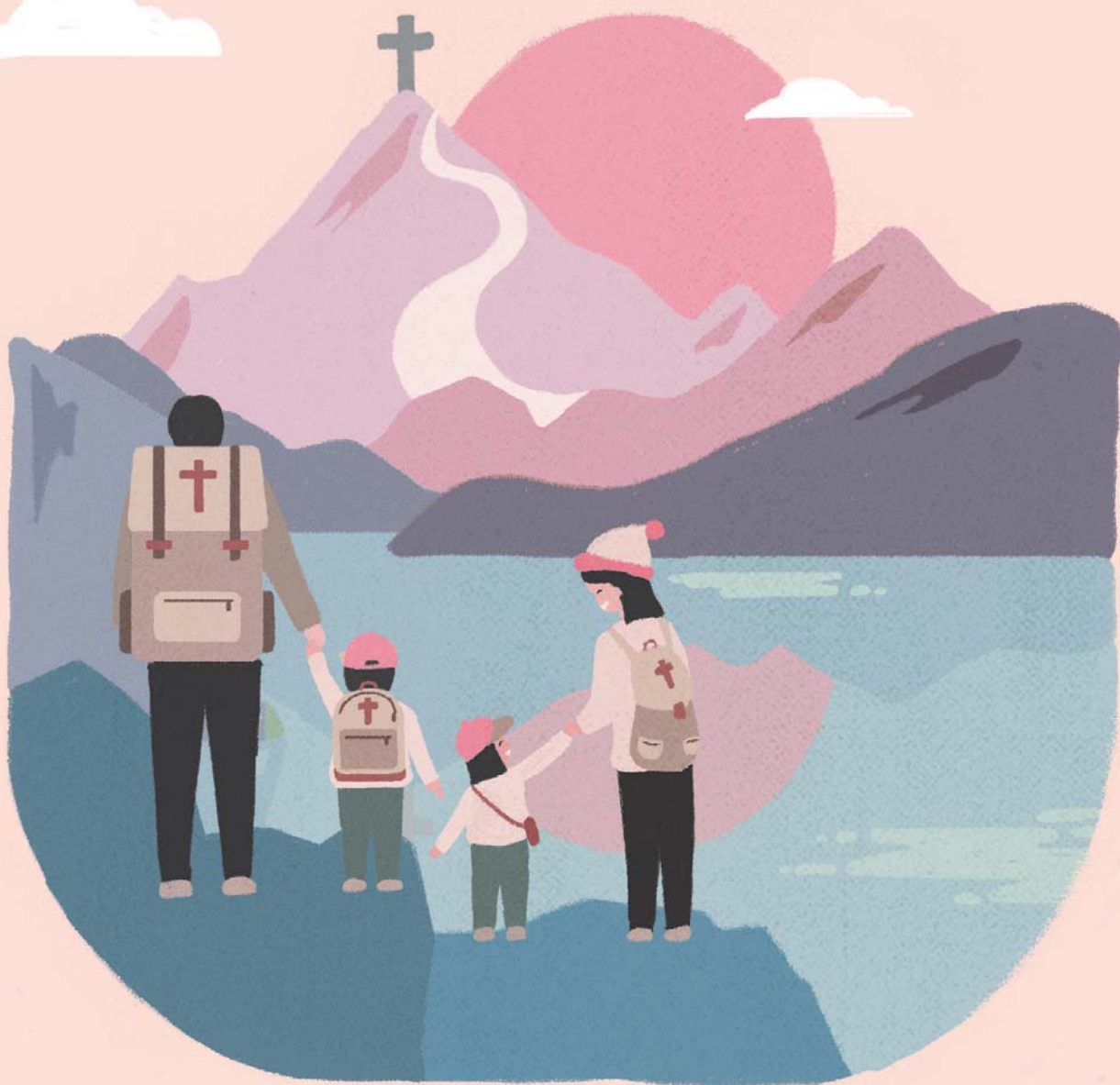


말씀대로 365와 함께하는

FAMILY DAY

<답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4·5·6월호 소개 - 답게 살아가는 우리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04.04 ~ 04.10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12
2주	04.11 ~ 04.17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14
3주	04.18 ~ 04.24	세미한 소리	16
4주	04.25 ~ 05.01	전심을 다하여	18
5주	05.02 ~ 05.08	사무엘이 늙으매	24
6주	05.09 ~ 05.15	우연, 하나님의 계획!	26
7주	05.16 ~ 05.22	마지막 수업	28
8주	05.23 ~ 05.29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30
9주	05.30 ~ 06.05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고난	32
10주	06.06 ~ 06.12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38
11주	06.13 ~ 06.19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40
12주	06.20 ~ 06.26	온전한 하나님 사랑	42
13주	06.27 ~ 07.03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44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답게 살아가는 우리

4-6월호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창 1:31 **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도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 때 던지고 끝난 질문인 줄 알았지만 20대를 살다보면 또 다시 되돌아오는 질문입니다.

30대 직장이 정해지면 마냥 달려갈 줄만 알았지만 가정도 이루고, 부모도 되면서 이내 또 다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40대를 살고, 50대를 살고, 더 나이 들어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제는 인생을 알고, 나를 안다고 생각도 들지만 이어진 또 다른 질문 ‘그래서 정말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다보면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다운 모습,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평생을 살면서 잘 묻고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 한 가정에서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학생과 청년은 그 ‘답게’ 살아갈 때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교제하는 기초가 됩니다.
- 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각자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그에 맞게, ‘답게’ 행할 때에 다양한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제와 사랑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 한 사회나 나라에서도 각자의 맡고 주어진 역할에 맞게, ‘답게’ 행할 때에 정직함과 신뢰와 존중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 다른 누구보다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 세워진 부모답게, 그리스도인 가정답게,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답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는 청소년과 아이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금 번 4~6월 가정예배책자는 “답게 살아가는 우리”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말씀대로 365의 본문을 따라가며 ‘말씀의 백성의 가정답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5월 원포인트 주간에는 본당예배와 자녀들 부서예배, 공과공부와 주중 가정예배까지 매 주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답게, 자녀답게, 청년답게’ 사는 것을 함께 듣고 나누며 예배하는 시간이 더하여 질 것입니다.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또 지어가시는 그대로 ‘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사무엘하 6:15-19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4

APRIL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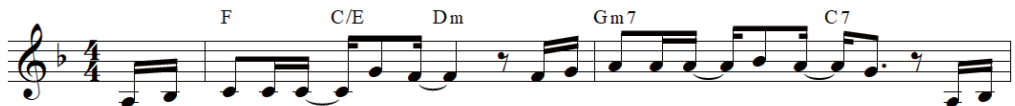
30

이달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주의 말씀 앞 — 에 선 — 당 신 은 참 된 — 예 배 — 자 그 토
2. 주의 부 르 심 — 따 라 — 당 신 의 삶 을 — 드 릴 — 때 서 상



룩 찾 으 — 시 던 — 하 — 나 님 의 — 기쁨 — 이 —
은 당 신 안 에 서 — 주 의 영 광 보 — 리 라 — 이 —



세 상 을 — 향 한 — 거룩 한 생 명 빛 — 되 어 — 이 — 세 상 을 — 위 한 — 구 원 의
세 상 을 — 이 길 — 주 님 의 군 — 사 — 되 어 — 이 — 세 상 을 — 섬 길 — 주 님 의



소 — 망 — 되 어 — 영 원 한 하 나 님 의 나 라 — 함 께 세 워 — 가 리
손 과 발 — 되 어 — 영 원 한 하 나 님 의 나 라 — 함 께 세 워 — 가 리

4/4-10

1주 가정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사무엘하 6:15-19



이달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11p



말씀읽기 - 사무엘하 6:15-19

-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궤를 메어오니라
- 16 여호와와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 17 여호와와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 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생각하기

- Q1.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찬양과 율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Q2.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마음으
로 예배하고 있나요?



말씀듣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한 동안 이스라엘의 지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과도 같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성안에 온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나팔을 불며 춤을 추고 자신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다윗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체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성의 창문 곁에 서서 다윗이 뛰 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윗을 흉 보고는 결국 다윗이 방탕한 자처럼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춘 것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으며 이보다 더 낮아져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어 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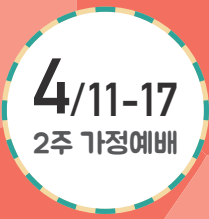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예배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어주신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던 다윗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신경쓰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열왕기상 3:4-12



이달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11p



말씀읽기 - 열왕기상 3:4-12

0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0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0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0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08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09 누가 누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리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생각하기

- Q1. 내가 가장 하고(갖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 Q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말씀듣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재물이나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은 곧 지혜로운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분별력과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셨음을 알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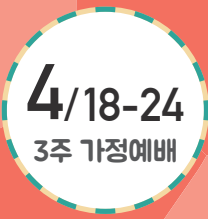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꿈꾸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9-13



이달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11p



말씀읽기 - 열왕기상 19:9-13

- 09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 10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 13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생각하기

- Q1. 세미한 작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작은 시계 초침 소리나, 풀벌레 소리 등
을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세미한(작은) 소리는 언제 들리나요?
- Q2.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듣기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멜산에 올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 선지자 사백 명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을 끝내지만, 아합 왕의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위협할 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임하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주함과, 많은 소리들, 영상이나, 게임, 혹은 욕심이나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도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상황을 잠잠케 하사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25-5/1

4주 가정예배

전심을 다하여

열왕기하 13:14-19



이달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11p



말씀읽기 - 열왕기하 13:14-19

- 14 리사가 죽을 병이 들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 15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 16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 17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벧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 18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 19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생각하기

- Q1. 공부를 하거나, 심부름을 할 때, 혹은 청소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나요? 반대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재미있게 놀 때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나요?
- Q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혹은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 공부를 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말씀듣기

옛날 한 부자가 자신의 집에서 일한 두 종을 집으로 돌려보낼 결심을 합니다. 그 부자는 종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두 종에게 새끼줄을 꼬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한 종은 그동안 자신을 잘 돌보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새끼줄을 가늘고 길고 바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은 주인이 그렇게 자신을 부려먹고서도 마지막 날까지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서, 아무렇게나 굵고 뺨뺨뺨하게 대충 새끼줄을 만들어 냅니다.

다음 날, 주인은 두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안 나를 성심성의껏 섬겨주어서 고맙다고, 여기 엽전이 있으니 이 엽전의 가운데 구멍에 새끼줄을 꼬아서 가지고 갈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늘고 바르게 그리고 전심으로 길게 새끼줄을 꼰 종은 많은 엽전을 가지고 갈수 있었고,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서 대충 굵고 뺨뺨뺨하게 짧게 새끼줄을 꼰 종은 엽전이 그 구멍에 들어가지 않아서 엽전을 몇 개 챙겨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그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에게 화살을 잡고 바닥에 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전심을 다해서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세 번만 땅에 화살을 쏘으로써 아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세 번만 칠 것이라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일을 행할 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심을 나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나 심부름을 할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열정을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5 MAY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석가탄신일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 - 의 다양 함 - 속 삶 의 자 - 리 그 가 운 - 데 -
우 린 지 - 금 한 몸 으 - 로 마 음 모 - 두 담 - 아 - 셔 -



모 두 에 - 게 친 구 되 - 신 주 를 찬 - 양 합 니 다 -
아 름 다 - 운 주 를 합 - 께 모 여 예 - 배 합 니 다 -



다 른 모 - 습 다 른 방 - 법 으 로 살 - 아 가 지 - 만 -
맑 은 모 - 습 맑 은 형 - 상 으 로 창 - 조 된 우 - 리 -



이 곳 에 - 서 하 나 되 - 신 주 를 노 - 래 합 니 다 - 우리 가
이 시 간 - 에 한 목 소 - 리 모 아 고 - 백 합 니 다 -



- 오 늘 도 - 의 지 하 - 는 - 주의 사 - 랑 - 연 - 약 한 자 - 상
- 오 늘 도 - 기 대 하 - 는 - 주의 사 - 랑 - 서 - 로 합 께 - 의



- 한 자 를 - 부 르 시 - 고 - 우리 를 - 지 하 며 가 리 라

5/2-8

1주 가정예배

사무엘이 늙으매

사무엘상 8:1-9



이달의 찬양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23p



말씀읽기 - 사무엘상 8:1-9

01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0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0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0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0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0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0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0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0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생각하기

- Q1.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다운, 청소년다운, 부모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각자 가장 중요한 모습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 Q2. 예수님 믿는 어린이로서, 청소년으로서, 부모로서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말씀듣기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오면서 신앙의 본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그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좋은 본을 따라야 하는 자녀답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지도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은 이 불의한 지도자를 거절하면서 심지어 사사라는 영적지도자 방식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백성 답지 않은 요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는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때 사무엘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답게, 자녀답게 잘 듣고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9-15

2주 가정예배

우연, 하나님의 계획!

룻기 2:1-7



이달의 찬양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23p



말씀읽기 - 룻기 2:1-7

0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0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어다 하매 0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0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0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수녀냐 하니 0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0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생각하기

Q1.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Q2.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깨달았던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추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룻은 항상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또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룻의 믿음이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룻에게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그것은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줍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일입니다²³. 그러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룻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우연히 일어난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연’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한 표현입니다. 즉 룻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일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겉보기에는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계획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따라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룻의 삶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16-22

3주 가정예배

마지막 수업

열왕기상 2:1-4



이달의 찬양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23p



말씀읽기 - 열왕기상 2:1-4

- 0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 0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 03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 0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 사이에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나요?
- Q2. 만약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말씀듣기

다윗이 나이를 먹고 죽을 날이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을 위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합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남기는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법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고, 그가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왕위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실패하지 않고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23-29

4주 가정예배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1-11



이달의 찬양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23p



말씀읽기 - 로마서 8:1-11

0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0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0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0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0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0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0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0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0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각하기

- Q1. 상대방에게 잘못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준 경험이 있나요? 그때 느낀 마음의 감정에 대해 나누어봅시다.
- Q2.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삼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들을 연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죄와 사망의 힘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범죄하게 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절망에 빠지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고,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30-6/5
5주 가정예배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고난

로마서 8:12-17



이달의 찬양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23p



말씀읽기 - 로마서 8:12-17

-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근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생각해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
나요? 아니면 어려움과 힘들어 있나요?
- Q2.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듣기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채워주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과 도구를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 안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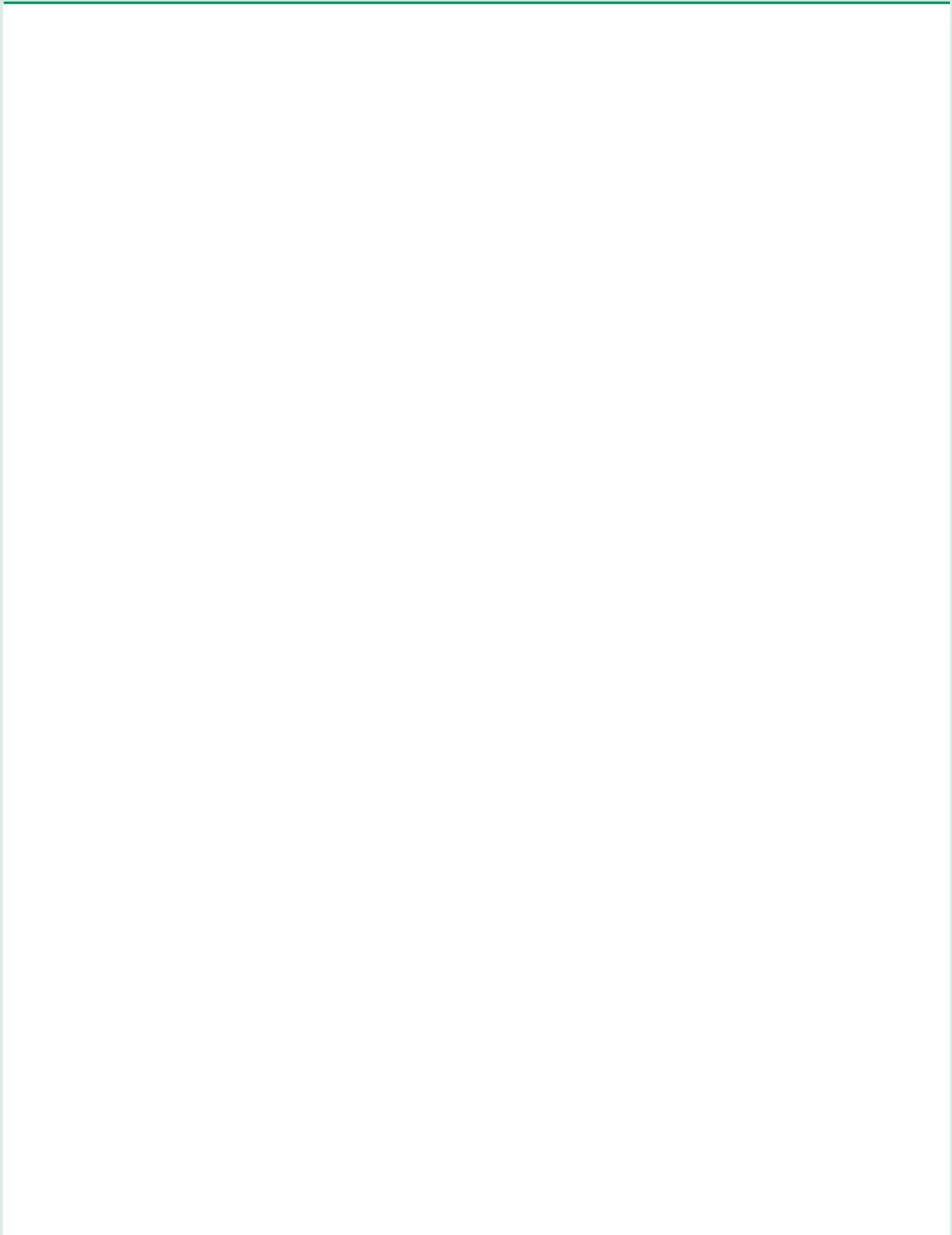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저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6

JUNE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충일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내 맘이 낙심되며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 맘 이 낙 심 되 며 근 심 에 눌 릴 때
2. 희 망 이 사 라 지 고 친 구 날 버 릴 때
3. 번 민 이 가 득 차 고 눈 물 이 흐 를 때

5 주 께 서 내 게 오 사 위 로 해 주 시 네
주 내 게 속 삭 이 며 새 희 망 주 시 네
주 나 의 결 에 오 사 위 로 해 주 시 네

9 가 는 길 캄 캄 하 고 괴 로 움 많 으 나
싸 움 이 맹 렬 하 여 두 려 워 떨 때 에
환 난 이 닥 쳐 와 서 어 려 움 당 할 때

13 주 께 서 합 께 하 며 내 집 을 지 시 네 그
승 리 의 왕 이 되 신 주 음 성 들 리 네
주 님 의 능 력 입 어 원 수 를 이 기 네

17 은 혜 가 내 게 족 하 네 그 은 혜 가 족 하 네 - 이

21 괴 로 운 세 상 지 날 때 그 은 혜 가 족 하 네

6/6-12

1주 가정예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욥기 23:13-17



이달의 찬양 <내 맘이 낙심되며> 37p



말씀읽기 - 욥기 23:13-17

-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생각하기

- Q1.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혹은 선생님에게 혼이 났던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 Q2.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말씀듣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왜 자신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삶이 괴로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때로는 원망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의 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막14:34}’라는 말씀과 함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막14:36}’라고 기도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으셨으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욥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던 욥과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납득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두렵고 원망스러운 마음들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살아가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23:1-6



이달의 찬양 <내 맘이 낙심되며>

37p



말씀읽기 - 시편 23:1-6

- 0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0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0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0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0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0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생각하기

- Q1.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봅시다.
- Q2.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주셨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말씀듣기

다윗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산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모시던 사울 왕의 질투로 여러 번 죽을 목숨에 처하기도 했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사람인 척을 해야 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쫓겨 다녔으며, 그 아들의 죽음 또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았고 그로 인한 죄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음에도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슬프고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주심을 직접 경험했기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어려움 많은 이 인생을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른다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온전한 하나님 사랑

시편 84:1-12



이달의 찬양 <내 맘이 낙심되며>

37p



말씀읽기 - 시편 84:1-12

0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0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0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 자리를 얻었나이다 0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0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0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0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0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0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생각하기

- Q1.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본적이 있나요? 고향(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Q2.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누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말씀듣기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그곳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1-4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복을 노래합니다^{5-7절}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을 토로하며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교회와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란 예루살렘의 장막, 즉 성소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체가 아름답거나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혼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몸처럼 지키고 헌신하며 그에 속한 연약한 영혼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주시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6/27-7/3

4주 가정예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1-8



이달의 찬양 <내 맘이 낙심되며>

37p



말씀읽기 - 시편 121:1-8

- 0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0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0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 0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0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0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 0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0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생각하기

- Q1.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이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Q2.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말씀듣기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서쪽은 중앙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로 보호되는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환경의 편안함과 안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거쳐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야 한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벽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외적인 환경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믿음의 백성들, 우리를 흔들며 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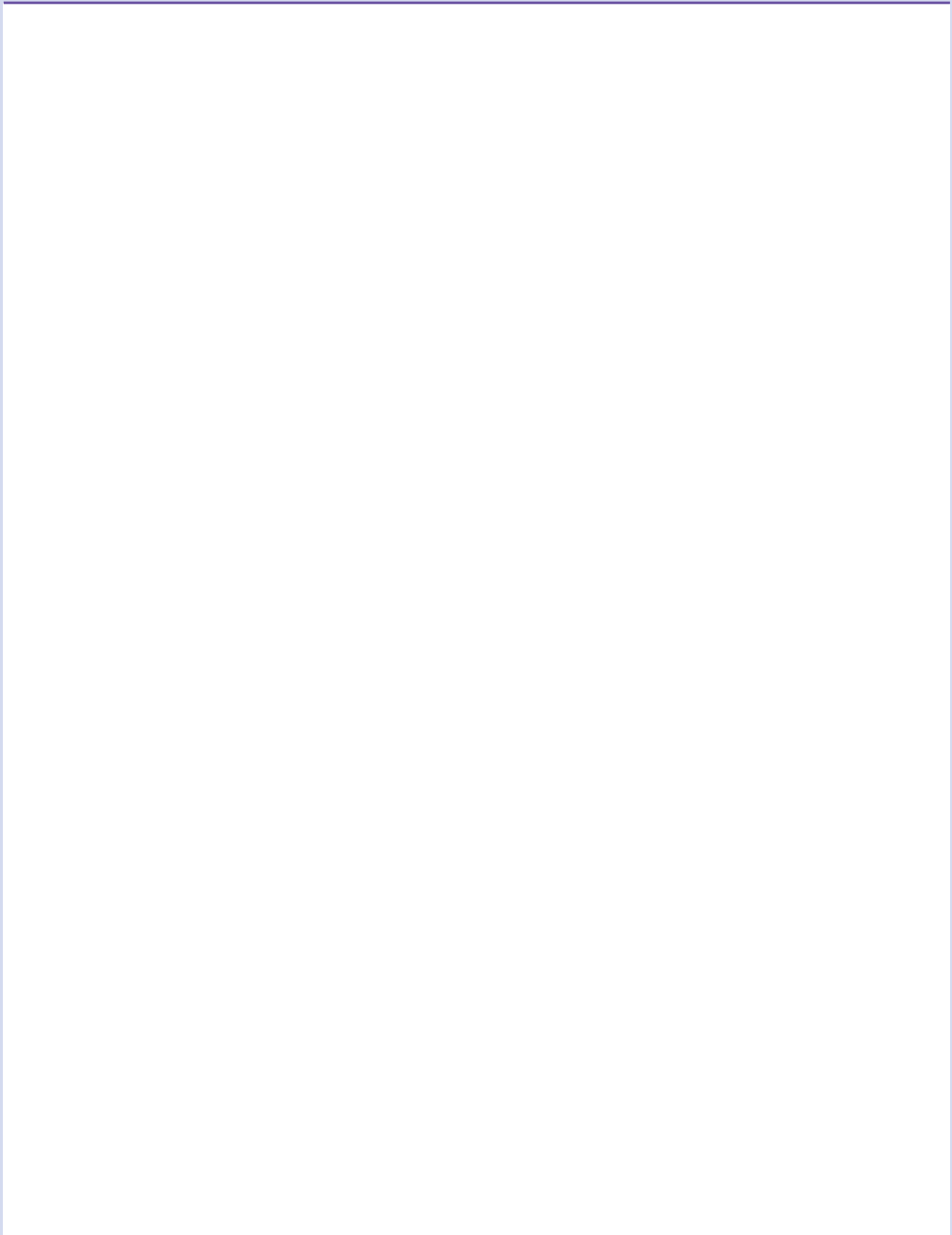


기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평안주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발행통권 | 28호
발 행 일 | 2021년 4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백성우, 정천우
편 집 인 | 지기원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